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Communication Strategy and Socio - demographic Variables on Family Strengths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박 복 매
부교수 문 혁 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 : Bok Mae Park

Associate professor : Hyuk Jun Moo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family strengths are affected by parenting stress,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communication strategy, with a specific focus on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total, 418 mothers of 4-5 years old childr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Higher education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communication strategy and better family strengths. However educational background had no effect on degree of parenting stress. Lower household income was related to higher parenting stress while higher income resulted in stronger family strengths. However family income showed no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strategy. Lower parenting stress and higher communication strategy contributed to better family strength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family strengths was parenting stress.

주제어(Key Words)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의사소통지향성(communication strategy), 가족건강성
(family strength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양육은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로서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또한 가정생활에 적잖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동으로 있으나 사회와 전통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가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머니에게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내적·외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생긴 갈등 상태나 자신의 적응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극에 의해 야기된 정신적·신체적 긴장 상태로서 성인 뿐 아니라 영유아, 신생아 그리고 태아까지도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으며(Davis & Emory, 1995; Gunnar, Porter, Wolf, & Rigatuso, 1995), Crinic과 Greenberg(1990)는 양육 스트레스란 개인과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되는 가족체제내의 긴장과 압력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Belsky(1984)는 아동의 인성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가 겪는 사회 관계망에서의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으며, 부모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도움을 주는 주변상황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Abidin(1990)은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으며, 박성연, 전춘애와 한세영(1996), 신숙재(1997)는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김리진, 윤종희, 2000; Belsky & Steinberg, 1978),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대졸 이상인 어머니들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김리진, 윤종희, 2000; 박성옥, 1997)가 보고된바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스트레스원(김리진, 윤종희, 2000)으로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황인향, 1993), 직업유형에 있어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에 대해 한계를 가장 덜 느끼는데 반해 비취업모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보다도 부모역할에 대한 한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허영림, 윤혜진, 2002).

상황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정문자, 이미리, 2000)와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김기현, 2000; 김리진, 윤종희, 2000; 박성옥, 1997)를 보고하였으며,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강희경, 조복희, 1999; 김기현, 2000; 문혁준, 2004). 그 외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 등을 들 수 있는데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가족행사 등에서 남편의 지지는 부인의 이중역할 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전춘애, 박성연, 1996),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과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졌다(Greenberger & O'Neil, 1993).

Olim(1970)은 사회적·교육적 결손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유아의 초기에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유아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는 유아를 양육할 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적·정의적 특성을 유아들에게 심어주게 되기 때문에 유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어머니의 언어 환경을 강조하였다(임화성, 2006, 재인용). 김미영(2000) 또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은 구성원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였으며 임은나(2006)는 의사소통 능력은 유아기에 습득되고 학습되며, 교육과 훈련을 거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고든(Gordon, 2002)은 부모가 자녀에게 의사소통 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 나-메세지 전달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카운슬러가 하는 것처럼 수용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그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나수진(1996)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유아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자녀 양육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은 Bernstein(1961)에 의해 처음으로 강조된 바 있으며, 그 후 Bernstein(1973)은 가정이 어떤 문화 영역에 속하는가에 따라 상호작용 유형이 달라지며 이것을 인성지향적, 지위지향적, 명령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Hess와 Shimpman(1965)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유형과 유아의 인지적인 기능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언어(민성예, 2000; 이숙영, 2000) 및 사회적 문제해결력(이애리나, 1989), 사회적 능력(김정선, 2003; 이미경, 2007), 대인관계

해결사고(나수진, 1996; 전계순, 1993), 자아 존중감(김정선, 2003; 류진영, 2004; 배정미, 2006; 임미연, 2001), 유아의 공격 행동(김민정, 2000; 김여가, 1997), 친사회적 행동(배정미, 2006; 엄주경, 1998), 유아의 자율성(김남희, 1999), 양육 태도(이미경, 2007; 이영옥, 2003; 임미영, 2003), 유아의 감성지수(김현숙, 2000), 내의 통제성(전희선, 2004; 차운정, 2002)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언어적 환경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환경은 유아의 전반적인 결손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며, 가족 전체 구성원 간에 건강성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은 인간의 출생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최초로 경험하는 기초적인 사회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한 가족구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이 가족 개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은 그 가족 구성원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가족환경을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 가족학 분야에서는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안선희, 김선영, 2004).

건강한 인간은 건강한 가족에서 만들어 진다고 할 때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 문제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어은주, 유영주, 1995)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족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가족 개념설정에 관한 연구, 건강가족 관련변인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세은(2000)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가족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대희(2003)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이 가족건강성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송경희(2004)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임정아와 이인수(2006)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의 성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 가족건강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유형에서는 육체노동,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건강성을 낮게 인지한다고 하였다(권대희, 2003; 김진희, 1989; 윤세은, 2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오히려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어은주, 1996)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강희경, 2005; 권대희, 2003; 임정아, 2005; 홍성애, 1998)가 대조를 이루었으며, 부모의 학력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김진희, 1989; 송경희, 2004; 최정혜, 2005).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높으면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가족원간에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고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족환경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안선희, 김선영, 2004). 하지만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부모는 양육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녀의 발달에 맞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이루어 지지 못함으로 인해, 자녀는 또래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조망수용능력이나 이타심이 부족한 자녀들이 늘어나는 현실이다. 출산율의 저하로 한 가정의 자녀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가족의 중심이 부모 보다는 자녀에게 더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성 상황에서 자녀가 가족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할 때 자녀의 건강성은 곧 가족의 건강성을 대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발달과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언어 상호작용이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의사소통 지향성이 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건강성과 어머니와의 언어 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혀 보다 긍정적인 관련성을 규명하여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전략과,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가족건강성에 차이는 어떠한가?
 - 1-1.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차이는 어떠한가?
 - 1-2.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의사소통 지향성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 1-3.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가족건강성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이고 종속변인으로는 가족건강성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인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되었고 신뢰도가 입증된 4개 영역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간에 유대가 높으며, 가족원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을 갖추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가족의 특성으로 정의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족원간의 유대는 가족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가족원간에 의사소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경청과 주목이 잘 이루어지고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고, 최적의 문제해결방법으로 대화를 한다. 셋째,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위기를 다루면서 단합되고, 그 손해를 최소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성장기회를 찾으며, 문제해결 기술은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대안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넷째,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는 목표를 공유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며 가족의 행복에 늘 신경을 쓰고, 가족의 일원임에 긍지를 갖고, 전통과 가족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가족가치관이나 규율의 원리가 가족원에게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418명으로 각 기관에 협조를 의뢰한 뒤 어머니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상이 264명(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는 235명(56.2%), 전업주부는 183명(43.8%)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75명(41.9%), 전문대졸이 125명(29.9%), 대졸이상이 118명(28.2%)으로 고졸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92명(21.8%), 200 ~ 300만원 미만이 145(34.7%), 300만원 이상이 181명(43.3)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이 270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N = 418)

변인	구분	N(%)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6(1.4)
	30 ~ 34세	148(35.4)
	35세 이상	264(63.2)
어머니 취업 유무	유무	235(56.2)
	무	183(43.8)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175(41.9)
	전문대졸	125(29.9)
	대졸이상	118(28.2)
가정의 월소득	200만원 미만	92(22.0)
	200 ~ 300만원 미만	145(34.7)
	300만원 이상	181(43.3)
자녀수	1명	91(21.8)
	2명	270(64.5)
	3명 이상	57(13.7)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7일부터 25일 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4 ~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500부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430(86%)부였으나, 이 중 잘못 표기하였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8부가 분석자료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PSI : Parenting Stress Index)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경숙, 엄현경과 신윤오(2000)가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강옥순(2006)이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를 거쳐 최종 사용한다.

이 척도는 아동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는 아동영역(13문항)으로 활동성, 부모강화, 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의 6가지, 부모 자신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특성 영역(14문항)으로 유능성, 애착, 억압성, 침체성, 배우자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의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특성에 따른 문항 내용으로는 '우리아이는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나를 지치게 한다.' '우리아이는 다른 아이들 보다 많이 울고 짜증을 낸다.' 등이 있으며, 부모특성에 따른 문항 내용으로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저지시키는 일이 어렵다', '아이를 가진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 졌다' 등이 있다.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 사건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

〈표 2〉 연구도구의 문항수 및 Cronbach's α

측정도구		문항수	Cronbach's α
양육 스트레스	아동특성 스트레스	13	.83
	부모특성 스트레스	14	.83
	스트레스(전체)	27	.89
의사소통		6	.67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10	.90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	.85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6	.8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9	.86
	가족건강성(전체)	34	.96

을수록 각 요인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2) 가족의 건강성

어은주,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로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9문항)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의사소통 지향성

의사소통 지향성은 부모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의 생각이 틀렸을 때는 언제든지 말하도록 하거나, 유아가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이야기 하도록 격려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와 따뜻함을 유지하고, 유아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Austin(1993)의

의사소통 척도와 서정희(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유경애(2000)가 제작한 어머니 언어상호작용 유형 조사 도구에서 '의사소통 지향성' 6개 문항, '통제 지향성' 4개 문항, '화합 지향성' 4개 문항 중 '의사소통 지향성' 6개 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지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의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ANOVA 검증,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의 상관관계분석을,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가족건강성 차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검증을 사용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 및 가족건강성의 차이

(N = 418)

		고졸이하 (n = 175)		전문대졸 (n = 125)		대졸이상 (n = 118)		F
		M	SD	M	SD	M	SD	
양육 스트레스	아동특성 스트레스	1.89	.37	1.83	.36	1.80	.33	2.19
	부모특성 스트레스	2.00	.40	2.02	.35	2.04	.35	.41
	스트레스(전체)	1.95	.34	1.93	.32	1.93	.30	.20
의사소통 지향성		2.89 _a	.34	2.93 _a	.32	3.05 _b	.38	7.33**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3.07 _a	.34	3.12 _a	.42	3.30 _b	.42	12.59***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2.98 _a	.34	3.02 _a	.38	3.19 _b	.41	12.24***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03 _a	.37	3.06 _a	.39	3.25 _b	.44	12.3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2.73 _a	.36	2.78 _a	.40	2.97 _b	.43	13.68***
	가족건강성(전체)	2.95 _a	.32	2.99 _a	.37	3.18 _b	.40	14.86***

a, b :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Scheffé)

p < .01, *p < .001.

의사소통 지향성은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F = 7.33, p < .01$), Scheffe검증 결과 고졸 이하·전문대졸이하와 대졸이상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가 전문대졸이하일 때 보다 의사소통 지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4개 하위요인들인 '가족원간의 유대' ($F = 12.59, p < .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F = 12.24, p < .001$),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F = 12.31, p < .00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F = 13.68, p < .001$), '가족건강성 전체' ($F = 14.86,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검증 결과 고졸이하·전문대졸이하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이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 집단이 전문대졸이하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검증을 사용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아동특성 스트레스' ($F = 3.78, p < .05$)와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F = 3.39,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Scheffe검증 결과 '아동특성 스트레스'에서 200만원 미만 집단과 200 ~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집단이 차이가 있었고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에서는 200만원 미만 집단·200 ~ 300만원 집단이 300만원 이상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아동 특성 스트레스'와 전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월수입에 따른 부모특성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의사소통 지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가족건강성의 4개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유대' ($F = 10.87, p < .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F = 9.42, p < .001$),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F = 10.16, p < .00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F = 12.62, p < .001$)와 '가족 건강성 전체' 점수 ($F = 12.51,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Scheffe검증 결과 가족원간의 유대에서 200만원 미만·200 ~ 300만원 집단과 300만원 이상 집단이 차이가 있었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에서는 200만원 이하 집단과 200 ~ 300만원·300만원 이상 집단이 차이가 있었고,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200만원 미만 집단과 300만원 이상 집단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건강성 전체' 점수에서는 200만원 이하집단, 200 ~ 300만원 집단,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집단보다 3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 및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특성 스트레스'는 가족원간의 유대($r = -.35, p < .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r = -.31, p < .001$),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r = -.36, p < .00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r = -.33, p < .001$), 가족건강성 전체($r = -.36, p < .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특성 스트레스'는 가족원간의 유대($r = -.39, p < .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r = -.37, p < .001$),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r = -$

<표 4>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 및 가족건강성의 차이

(N = 418)

		200만원 미만 (n = 92)		200 ~ 300만원 미만 (n = 145)		300만원 이상 (n = 181)		F
		M	SD	M	SD	M	SD	
양육 스트레스	아동특성 스트레스	1.93 _a	.38	1.84 _b	.34	1.81 _b	.35	3.78*
	부모특성 스트레스	2.09	.39	1.98	.38	2.01	.36	2.28
	스트레스(전체)	2.01 _a	.34	1.91 _a	.32	1.91 _b	.32	3.39*
의사소통 지향성		2.89	.38	2.93	.33	2.99	.35	2.36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3.02 _a	.41	3.12 _a	.34	3.24 _b	.41	10.87***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2.92 _a	.38	3.04 _b	.32	3.12 _b	.41	9.42***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2.97 _a	.41	3.07 _{ab}	.33	3.19 _b	.43	10.16***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2.66 _a	.39	2.79 _b	.34	2.91 _b	.43	12.62***
	가족건강성(전체)	2.89 _a	.37	3.00 _b	.30	3.11 _c	.40	12.51***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Scheffé)

p < .05, *p < .001.

〈표 5〉 양육스트레스 및 의사소통지향성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N = 418)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가족건강성 (전체)
아동특성 스트레스	-.35***	-.31***	-.36***	-.33***	-.36***
부모특성 스트레스	-.39***	-.37***	-.36***	-.36***	-.40***
양육스트레스 (전체)	-.41***	-.38***	-.40***	-.39***	-.43***
의사소통 지향성	.42***	.43***	.35***	.35***	.42***

*** $p < .001$.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 및 가족 건강성의 상관관계

(N = 418)

	1	2	3	4	5	6	7	8	9
1. 어머니 학력									
2. 월수입	.40***								
3. 아동특성 스트레스	-.10*	-.13**							
4. 부모특성 스트레스	.04	-.07	.61***						
5. 의사소통 지향성	.18***	.11*	-.28***	-.18***					
6. 가족원간의 유대	.23***	.22***	-.35***	-.39***	.42***				
7.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22***	.21***	-.31***	-.37***	.43***	.88***			
8.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22***	.22***	-.36***	-.36***	.35***	.83***	.82***		
9.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23***	.24***	-.33***	-.36***	.35***	.81***	.79***	.77***	
10. 가족건강성 전체	.24***	.24***	-.36***	-.40***	.42***	.95***	.94***	.90***	.91***

* $p < .05$. ** $p < .01$. *** $p < .001$.

.36, $p < .00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r = -.36$, $p < .001$), 가족건강성 전체($r = -.40$, $p < .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가족원간의 유대($r = -.41$, $p < .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r = -.38$, $p < .001$),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r = -.40$, $p < .00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r = -.39$, $p < .001$), 가족건강성 전체($r = -.43$, $p < .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동특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특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전체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지향성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지향성은 가족원간의 유대($r = .42$, $p < .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r = .43$, $p < .001$),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r = .35$, $p < .001$),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r = .35$, $p < .001$), 가족건강성 전체($r = .42$, $p < .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이 의사소통 지향적일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의사소통 지향성이 가족건강 성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의사소통 지향성이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표 6〉을 통하여 독립-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투입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r = .61$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VIF 1.0이하(1.12 ~ 1.70) TOL 0.1이상(.59 ~ .90)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본 가정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자기회귀 현상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1.88 ~ 1.93으로 나타나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에 대한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의사소통 지향성이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 7〉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총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beta = .15$, $p < .01$), 가정의 월수입($\beta = .12$, $p < .01$), 부모특성 스트레스($\beta = -.31$, $p < .001$), 의사소통 지향성($\beta = .31$,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원간의 유대의 경우 의사소통 지향성($\beta = .32$, $p < .001$), 부모특성 스트레스($\beta = -.29$, $p < .001$), 어머니의 학력($\beta = .13$, $p < .01$), 가정의 월수입($\beta = .11$, $p < .05$)의 순으로 그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가족원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지향성, 부모특성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력, 월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경우에는 아동특성 스트레스 변인이 추가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표 7〉 가족건강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N = 418)

독립변인	총점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β	β	β	β	β
어머니 학력	.15**	.13**	.14**	.13**	.14**
가정의 월수입	.12**	.11*	.10*	.11*	.13**
아동특성 스트레스	-.06	-.06	.00	-.11*	-.07
부모특성 스트레스	-.31***	-.29***	-.31***	-.25***	-.28***
의사소통 지향성	.31***	.32***	.34***	.24***	.24***
상수	2.55	2.60	2.40	2.82	2.47
F값	42.14***	38.89***	37.01***	30.14***	30.69***
R ²	.34	.32	.31	.27	.27

*p < .05. **p < .01. ***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동특성과 부모 특성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사소통 지향성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가족건강성에 대한 총점의 34%, 가족원간의 유대의 3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의 31%,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27%,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의 27%를 설명해주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의사소통 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지향성과 가족건강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박영아(2005)와 백영숙(2007)의 연구와는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인 어머니들 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김리진, 윤종희, 2000; 박성옥, 1997; 전상미, 2006)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김동진, 2002)와는 대조를 보인다.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 양육방법에 따른 자신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과도 관련되는 변수라는 면에서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수(김기현, 2000)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김기현, 2000; 문혁준, 2004; 이미자, 문혁준, 2008)에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가 낮다는 일관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이 주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의사소통 지향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의사소통 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임화성, 2006) 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연구(김영주, 1999; 김정선, 2003; 이숙영, 2000; 이에리나, 1989; 임미영, 2003)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의사소통지향성에 차이가 없는 결과(이미경, 2007; 이영옥, 2003)와는 대조를 이룬다.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고 자녀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개방적이며, 지지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하위요인들인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안선희, 김선영, 2004; 윤연정, 이미숙 2007; 최정혜, 2004; 홍성례, 유영주,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의 교육적 배경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과 대화 폭이 넓고 유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졸이상 학력의 집단과 다른 집단간에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평균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가족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가족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동등하게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특성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정과, 200~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어머니들에 비해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들은 대체인력이나 기술을 가사나 양육에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박영아, 2005; 정문자, 이미리, 2000)와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덜해 스트레스가 낮다는 전상미(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들이 경제적 정보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사회제도적 보호막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강희경, 조복희, 1999). 하지만, 연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백영숙(2007)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소득이 높은 경우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의사소통 지향성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임화성, 2006)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이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4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건강성 전체 점수에서 200만원 미만 집단, 200~300만원 미만 집단,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강희경, 2005; 윤세은, 2000; 윤연정, 이미숙, 2007; 임정아, 2005; 임정아, 이인수, 2006)와 일치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생활에 있어 제약을 받으며, 건강가족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유, 오락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서 어머니 개인의 안정은 물론 가족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편적으로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가정의 월수입은 건강한 가족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 가족건강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아동특성 스트레스, 부모특성 스트레스)과 양육스트레스 전체점수와 가족건강성 하위요인(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

유)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특성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전체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본인 자신의 특성 보다는 아동 특성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결과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최정혜(2006)의 연구, 즉 맞벌이 부부의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간의 중요한 변인이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해 합리적 지도, 애정적, 적극적 참여를 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를 하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문혁준(2005)의 연구 결과와 양육태도는 가족건강성의 각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한영숙(2006)의 결과에서 보듯이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는 상관관계가 높다.

또한 의사소통 지향성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지향성은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과 가족건강성 전체와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이 의사소통 지향적일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자주 대화하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의사소통 지향성이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즉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 지향적 의사소통, 양육스트레스,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영향력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언어 환경, 양육스트레스, 등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모두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건강한 가족구성과 관련된 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이나 가정의 월수입은 도움을 주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머니의 언어 환경이나 양육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어머니와 유아간의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체계적 부모교육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생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과 관련하여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머니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는 있지만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버지 또한 양육에 책임이 있고, 건강가족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연령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보고가 된 관계로 학력이나 가정의 수입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변인 외에 취업의 유무와 직업의 유형, 가족의 유형, 부부관계, 성격 등 건강가족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양육스트레스는 청소년기 자녀 보다는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외 가족 면접이나 관찰 등의 다각적인 접근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가족건강성 개념 안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지향성'과는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 회귀분석에서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초래하는 한계를 보였다.

■ 참고문헌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강희경,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권대희(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

아존증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기현(2000).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남희(1999).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율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동진(200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김미영(2000). 의사소통 훈련이 중학생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정(2000). 아버지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여가(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주(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선(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숙(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감성지수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수진(1996).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대인 문제 해결 사고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진영(2004). 아동의 부모 언어통제유형 지각과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민성예(2000).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인지, 언어 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

- 한가정학회지, 43(4), 203-215.
- 박성옥(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2), 37-45.
- 박영아(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 배정미(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의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희(1998). 어린이의 시청행태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경희(2004).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엄주경(1998).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경애(2000). TV프로그램에 대한 유아의 현실감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 정체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연정, 이미숙(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05-122.
- 이경숙, 염현경, 신윤호(2000).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70-78.
- 이미경(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자, 문혁준(2008). 교사-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9(1), 1-14.
- 이숙영(2000).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애리나(1989).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옥(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태도와의 관계. 건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미연(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상호작용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미영(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은나(2006).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아(2005).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아, 이인수(2006).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임화성(2006). 부모의 언어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상미(200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원 요구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춘애, 박성연(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37(3), 95-105.
- 전희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문자, 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차윤정(2002). 母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자녀의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 청구논문.
-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 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최정혜(2005).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11-26.
- 최정혜(2006).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6), 47-58.
- 한영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 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영림, 윤혜진(200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만 4세~6세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6(4), 85-101.
- 홍성래, 유영주(2000).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 *생활 과학논집*, 4(1), 1-17.
- 홍성애(1998). 가정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인향(1993). 취업주부의 가족자원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ustin, E. W.(1993). The Importance of Perspective in parent-child interpretation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journalism Quarterly*, 70(3), 558-567.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Steinberg, L. D.(1978). The effects of day care: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0, 794-803.
- Bernstein, B.(1961). Social class and linguistic development: A theory of Social learning, In A. H. Halsey, J. Floud & G, A, Anderson(Ed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Bernstein, B. A.(1973). *Class, codes and control(Vol. 2): Applied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pp.24-47)*.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ro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ronic, K. L.,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53), 1042-1050.
- Davis, M., & Emory, E.(1995). Sex differences in neonatal stress reactivity. *Child Development*, 66, 14-27.
- Gordon, T.(2002). *부모역할 훈련*. 이훈구(역). 서울: 양철북. (1970년 원저발간)
- Greenberger, E., & O'Neil, R.(1993).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 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181-197.
- Gunnar, M. R., Porter, F. L., Wolf, C, M., & Rigatuso, J.(1995). Neonatal stress reactivity: Predictions to later emotional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6(1), 1-13.
- Hess, R. D., & Shimpman, V. C.(1965). Ear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tion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4, 869-886.

접 수 일 : 2008년 6월 29일
 심사시작일 : 2008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9월 5일